

양돈계열화사업

참여 농가의 수익성!

1. 머리말

20 세기 후반에 농축산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으로 21세기의 국제 무역질서가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더욱이 2000년부터 시작하는 차기농산물 협상에서는 개방화와 국내 보조금의 삭감 수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농축산업이 외국농산물의 잠식으로부터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97년 7월 1일 돼지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대만의 구제역 발생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에서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1999년 1~11월까지 수입물량은 121천톤에 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는 출하물량의 부족 등으로 국내가격이 강세에 있으나, 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돼지 사육체계는 대부분의 농장이 번식+비육 일관경영 형태로 사육함으로써 초기 시설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운영자금의 조달 어려움 등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농장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경영으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사육기술의 향상과 비용절감 측면보다는 국내 돼지가격 수준이 비육돈 두당 170천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번식전문경영이나 비육전문경영체계에 비하여 경제적 유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돈가(豚價)위주의 사육체계로는 양돈 경영을 안정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장벽이 도사리고 있다. 즉, 수입돼지고기의 판매가격이 국내산 돈육에 비하여 상대적



송 금 찬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으로 마진폭이 크고, 사육규모의 증대, 돈육수출을 위한 돈콜레라의 박멸문제, 돼지고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쇠고기의 수입개방 등 돈가(豚價)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복병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돈농가의 경영 안정화 및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열화 사업의 참여농가 수익성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경쟁국별 비육돈 두당 수익률

주요 선진국의 양돈 사육체계는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이 연계된 계열화 사업이 정착되어 사육농가는 생산분야에만 전념할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계열화 사업의 정착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 및 위생수준 향상, 유통과 소비자에게 서비스의 능률화, 농가소득 보장,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등 양돈산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육성 발전시키고 있다.

각 국별 비육돈 생체 kg당 생산비에 있어서 한국은 100(1,587원)으로 할 때 미국은 32.3%, 덴마크는 52.9% 수준인 반면, 비육돈 두당 순수익(경쟁국은 이윤개념)은 미국과 덴마

〈표 1〉 각국별 비육돈 두당 수익성 단위 : 원

구 분	한국 (A)	미국 (B)	덴마크 (C)	대비(%)	
				B/A	C/A
조수입	196,096	63,324	92,257	32.3	47.1
생 경 산 비	가축비	43,811	-	-	-
	사료비	92,982	34,188	54,244	36.8
	감가상각비	5,145	3,336	6,708	64.8
	고용노력비	1,590	-	-	-
	기타	10,341	11,652	6,539	112.7
	소계	153,869	49,176	67,491	32.0
비	자가노력비	3,471	5,844	6,071	168.4
	자본이자	14,101	3,288	10,472	23.3
두당 생산비 (kg당 생산비)	171,441	58,308	84,034	34.0	49.0
	(1,587)	(512)	(840)	(32.3)	(52.9)
소득	42,227	-	-	-	-
	순수익	24,655	5,016	8,223	20.3
					33.4

주: 비육돈 두당 출하체중 기준 : 한국 108kg, 미국 114kg, 덴마크 100kg

자료 : 1) 한국 : 농촌진흥청, 양돈농가 경영실태 자료(100호), 1999

2) 일본 :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축산물 생산비 조사, 평성 8년

3) 미국 : 미국 IOWA 대학, University Extension, 1997

4) 덴마크 : Annual report 1998.

크에 비하여 각각 79.7%, 66.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쟁국에 비하여 생산비가 높고, 높은 가격 수준 하에서 국내 양돈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사육체계 즉, 육성돈 사료에 의한 무제한 급여체계와 돈가 위주의 사육형태로는 밀려들어오는 수입물량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간의 부위별 선호도 차이와 수출시장이 인근에 위치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과 같이 수입의존형의 축산업은 제아무리 높은 관세와 특별관세(차액관

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WTO 체제하에서는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국내가격 하락은 사육농가수와 사육두수의 감소로 연계되어 일본산 돼지고기 생산물량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3. 돼지 사육체계별 수익률

돼지 사육체계는 일관경영, 번식전문경영, 비육전문경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육체계별 생산기술 현황을 보면, 번식돈의 경우 연간 회전수에 있어서 계열경영농가가 일반농가에 비하여 3.7% 높은 2.25회전, 회전당 이유두수는 5.5% 높은 9.6

●양돈 계열화사업 실태 분석과 개선점●

특집

〈표 1〉 자돈 수탁농가와 일반농가와의 번식돈 생산기술

구 분	계열농가(A)	일반농가(B)	A/B(%)
번식돈 생산기술	연간회전수(회)	2,25	2,17
	산자수(두/회/복)	10.2	10.6
	이유두수(두/회/복)	9.6	9.1
	이유일령(일)	22.0	26.3
	자돈 폐사율(%)	5.9	14.2

* 계열농가는 자돈 수탁농가 성적, 일반농가는 번식 + 비육 일관경영 성적임

〈표 2〉 비육돈 위탁농가와 일반농가와의 비육돈 생산기술

구 분	계열농가(A)	일반농가(B)	A/B(%)
비육돈 생산기술	연간회전수(회)	3.0	2.1
	연간출하두수(두)	2,135	1,981
	입식체중(kg)	28.4	30.0
	비육기간(일)	102.9	105.8
	출하체중(kg)	106.8	100.0
	폐사율(%)	0.95	3.3
	일당증체량(g)	770	748
	암수분리사육(%)	79.8	11.2

* 계열농가는 비육돈 수탁농가 성적, 일반농가는 번식 + 비육 일관경영 성적임

〈표 3〉 계열농가와 일반농가의 경제성

구 分	계 열 농 가		일반농
	번식전문경영	비육전문경영	
수익성 (원/두)	조 수 입 경 영 비	73,980 48,758	196,096 153,869
	생 산 비 (kg당 생산비)	57,457 -	171,441 (1,587)
	소 득	25,222	9,463
	순 수 익	16,523	△719

* 번식전문경영은 자돈수탁경영, 비육전문경영은 비육돈 수탁경영농가, 일반 농가는 일관경영체계임

두, 자돈 폐사율은 58.5% 낮은 5.9% 수준으로 나타났다(표2). 이는 번식용 어미돼지를 3원교 접종으로 품종을 통일하여 이유 시기를 빨리함으로써 어미 돼지의 회전수를 높이고, 자돈의 환경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단일경영의 유리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육돈 사육에 있어서도 일

반농가에 비하여 비육돈 수탁 계열 농가가 연간회전수에서 42.9% 높은 3.0회전, 폐사율은 70.3% 낮은 0.95%, 일당 증체량에 있어서는 3.1% 높은 770g으로 나타났다(표 3). 이는 비육 전문경영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암·수 분리사육 등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육돈 생체 kg당 생산비에

있어서는 계열경영이 일반농가에 비하여 2.4% 절감된 1,547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육체계별 비육돈 두당 소득은 계열경영이 일관경영의 42천원에 비하여 비육돈 수탁경영농가는 22.4%인 9,463원, 번식전문경영농가는 자돈 1두당 59.7% 수준인 25천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결국 현재와 같은 돼지가격과 계열업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 수준에서는 국내 사육체계가 일관경영체계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일관경영체계로 돼지를 사육함으로써 시설비 및 기계장비 등의 고정비 부담이 크고(비육돈 1두당 설비투자 비용 : 번식전문경영 194천원, 비육 전문경영 171천원, 일관경영 328천원), 이로 인하여 돈가 하락 국면에 있어서는 사육농가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고 사료대금의 외상결재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돈품종의 다양화로 규모 일돈 생산이 어려워 All-in, All-out 사육체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질병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규모 사육농가들은 현재와 같은 일관경영체계에 의한 규모확대 보다는 소자본으로 위험부담을 줄이고

규모확대를 도모하면서 수탁사업에 따른 성과급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아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계열업체의 경우 대부분 부분 계열화체계이거나, 완전 계열화업체도 각 사업장별로 독립채산체로 운영되고 있어 사육농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계열주체가 위탁농가에게 지급하고 있는 위탁수수료를 결정할 때 대부분의 업체가 사료비를 비용원가 개념이 아닌 판매가격으로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다. 금후 계열업체가 고정시설의 가동률 제고, 수출물량의 확대, 브랜드화에 따른 상품 차별화 등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열농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위탁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가축비, 사료비 등이 비용원가 개념에 입각하여 위탁수수료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필자가 분석한 사육체계별 사료가격 및 비육돈 가격이 변동할 때 소득변화를 보면, 환율 및 국제곡물가격 변동으로 사료가격이 상승하고 산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비육전문경영 < 번식전문경영 < 일관경영 순으로 유리한 사육체계로 나타났다. 사료가격이

하락하고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일관경영 < 번식전문경영 < 비육전문경영 순으로 유리하고, 사료가격이 상승하고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일관경영 < 비육전문경영 < 번식전문경

영 순으로 유리한 사육체계로 나타났다. 즉, 돼지 산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관경영, 사료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번식전문경영, 사료가격과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비육전문경영이 유리한 사육체계로 나타났다.

4. 맷는말

국내 양돈산업의 국내외 여건은 수입 돼지고기의 물량 증가, 사육두수의 증가, 돈육수출을 위한 돈콜레라의 박멸문제, 돼지고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쇠고기의 수입개방 등 돈가(豚價)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복병으로 존재하고 있다.

WTO체제하에서 국내 양돈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계열화의 기반구축이 절실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즉, 국내 양돈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돈가위주의 사육체계 지양과 2~3 site시스템에 의한 생산성 제고 등으로 비용절감

중·소규모 사육농가들은 현재와 같은 일관경영체계에 의한 규모확대보다는 소자본으로 위험부담을 줄이고 규모확대를 도모하면서 수탁사업에 따른 성과급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아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은 물론, 고품질 돈육생산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계열화업체와 농가간의 계약조건이 지속되는 한 양돈농가들은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여 사육하는 것보다는 개별경영에 의한 번식+비육일관경영으로 규모확대를 도모해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육성돈 사료 위주의 무제한 급여방법에 의한 돈가위주의 사육체계는 지속될 것이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혼란도 거듭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먹구구식의 일관경영체계에 의한 규모확대보다는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뛰어지는 농장은 비육전문경영체계,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뛰어지는 농장은 번식전문경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계열주체와 참여농가, 정부, 양돈 관련단체 모두가 계열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양돈**